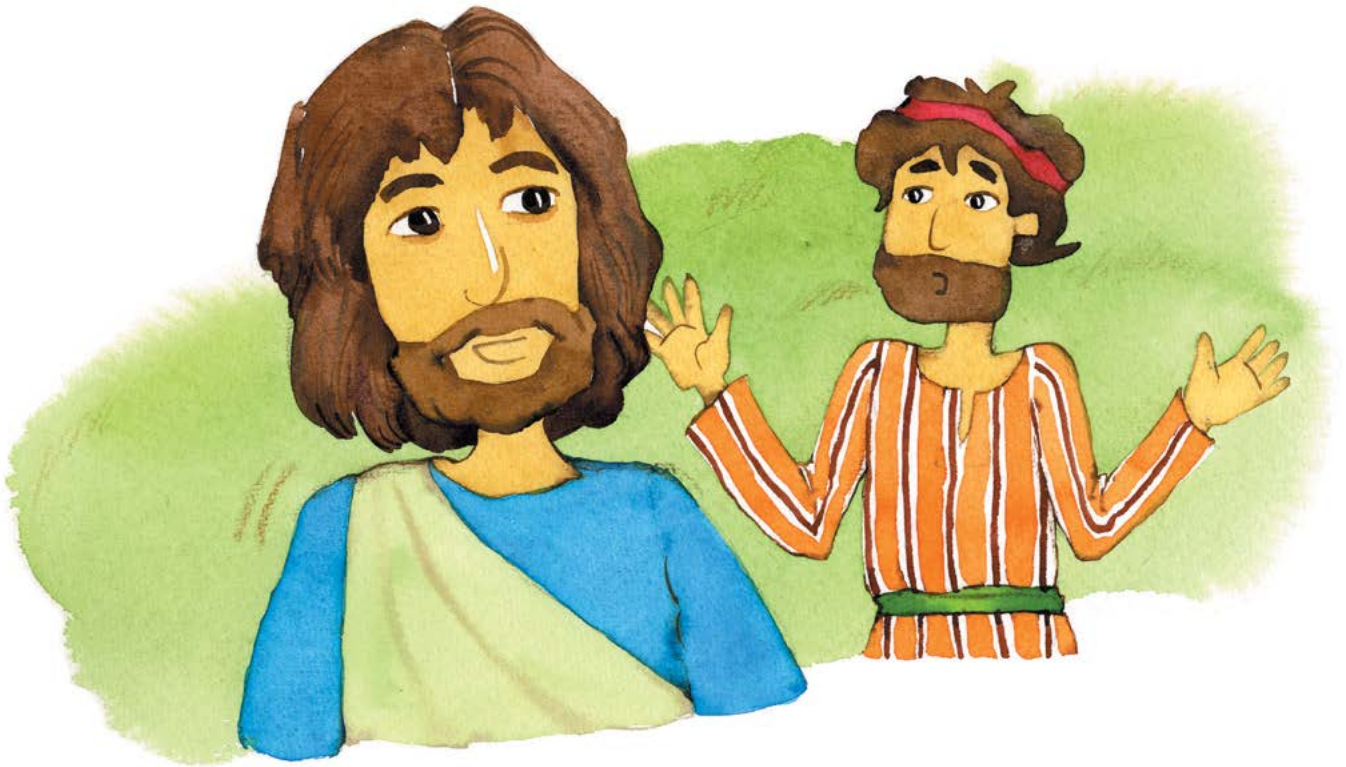




10월 19일



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루 종일 따라  
다녔어요. 저녁이 되자,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.  
예수님께서서는 제자 빌립에게 말했어요.

“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?”  
빌립은 대답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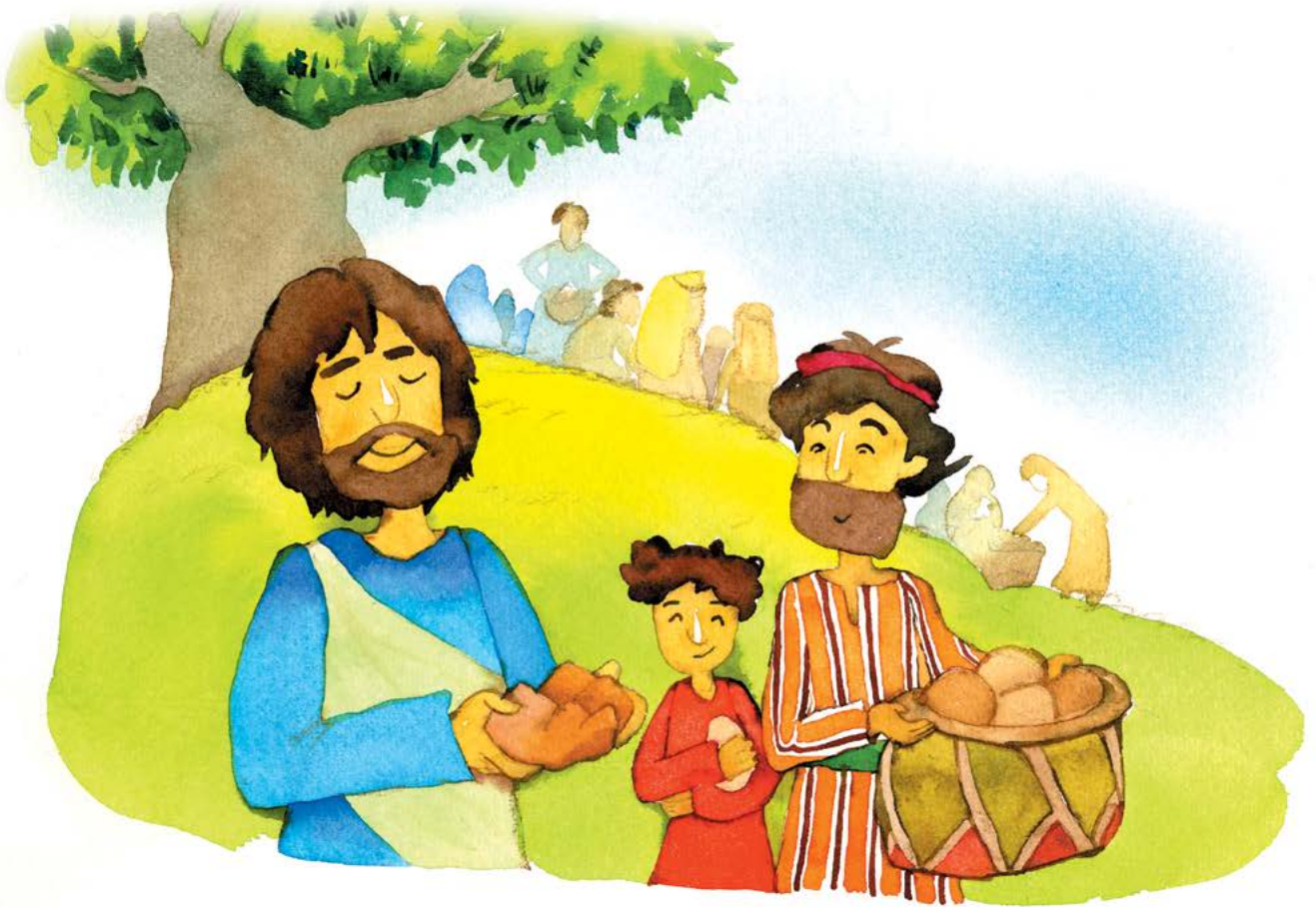
“사람이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들 거예요.”



제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았어요.

“누구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있어요?”

모두들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 보았어요.



그때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.  
“이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 
가지고 있어요. 하지만 이것으로는 어림도 없어요!”  
그 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오천 명이 넘었어요.  
예수님께서서는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시고,  
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.  
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.



모든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었어요.  
그런데 이상하게도 떡과 물고기는 없어지지 않고,  
다 먹고도 오히려 열두 바구니가 남은 거예요.  
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 좇아  
다녔어요.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보내고 혼자  
조용히 산으로 가셨어요.

# 생각하는 아이

남우의 가방에는 제일 좋아하는 마이쥬가 4개 있어요.  
근데, 친구들이 네 명이나 왔어요. 친구들과 나누어  
먹으려면 한 명이 못 먹게 돼요. 남우는 친구들과 나누  
어 먹고도 싶고, 남우도 먹고 싶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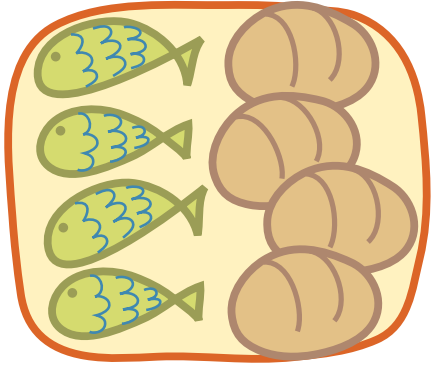
남우는 먹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,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마이썸을 나누어 주었어요. 친구들 중에는 남우를 놀리던 찬우도 있었어요. 찬우는 남우가 마이썸을 주니까 고마워했어요. 다음 주일, 친구들은 맛있는 과자를 가지고 와서, 남우에게 나누어 주었어요. 남우는 친구들이 나누어 준 과자를 또 다른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로 했어요. 나누어 먹으니까 더 많은 과자가 생겼어요. 참 신기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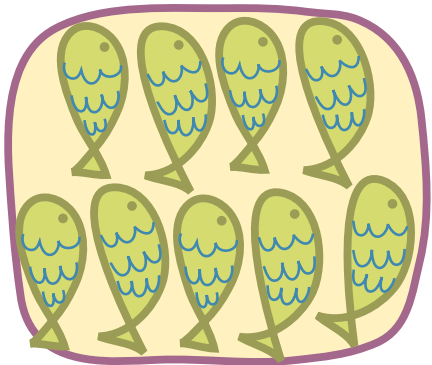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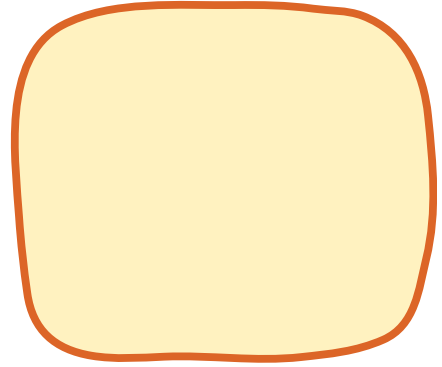
# 즐거은 활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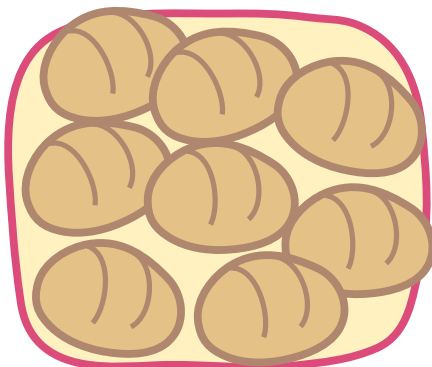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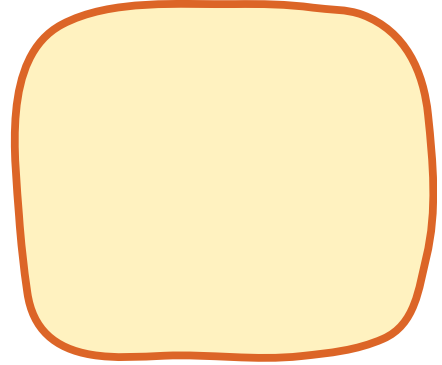
바구니에서 물고기와 보리떡을 원하는 만큼 주고 남은 것을 담아주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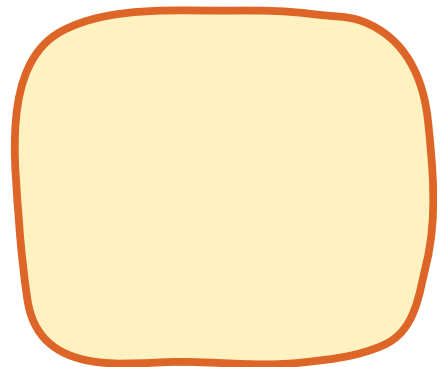
물고기 한 마리,  
보리떡 두 개  
주세요.



물고기 네 마리  
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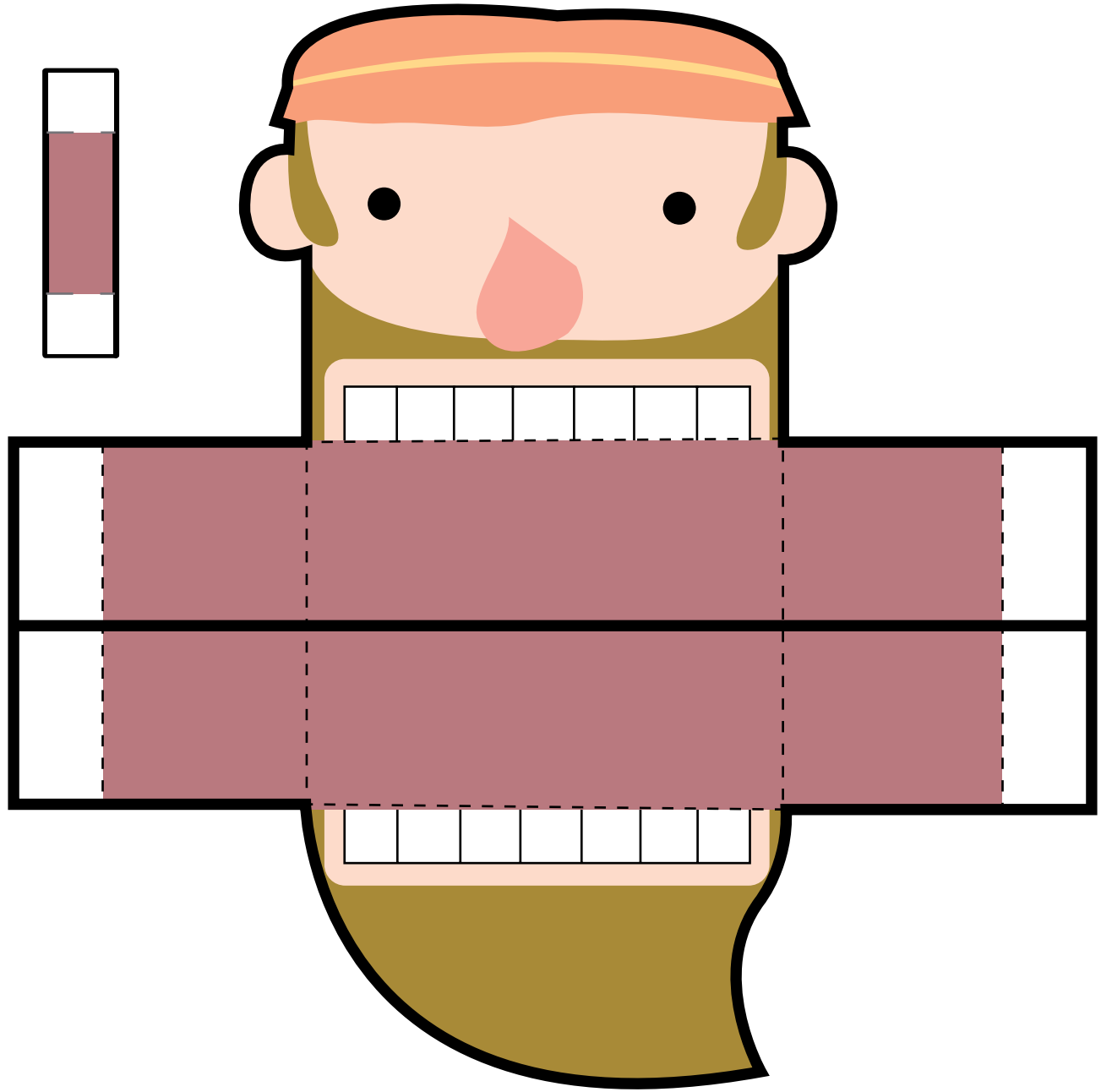


보리떡 다섯 개  
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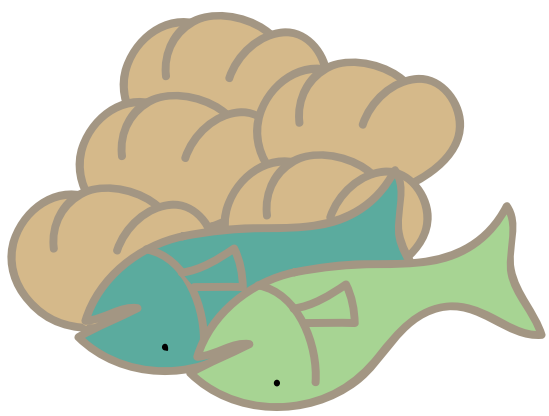


# 보리떡을 맛있게 먹는사람 만들기

\* 만드는 방법은 10쪽에 있습니다.



자르는 선 —————  
접는 선 - - - - -







# 마음속 암송

## 따라 쓰기

이에 거두니 보리떡  
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 
 열 두 바구니에 찻더라  
 요한복음 6장 13절

## 다시 쓰기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선생님께

부모님께